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2월 26일

회 사 명 : 삼성전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윤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0
(전 화) 031-210-5114
(홈페이지) <http://www.samsungs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팀장 (성 명) 송재국
(전 화) 031-210-6102

SAMSUNG

2161001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6기 정기)

1. 일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7층 그랜드홀
3. 회의 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나. 부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46기(2018.1.1 ~ 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1610010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승재 (출석률: 100%)	최현자 (출석률: 88%)	권태균 (출석률: 100%)	유지범 (출석률: 100%)	김용균 (출석률: 100%)	
				찬 반 여부					
'18-1차	2018-01-30	1. 제4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규선임 ('18.03.23)	
		2. '17년 준법활동 결과 및 '18년 계획 보고의 건	보고	-	-	-	-		
		3. '17년 실적 및 '18년 경영목표 보고의 건	보고	-	-	-	-		
'18-2차	2018-02-22	1. 제4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및 소집 결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	-	-	-		
		3. '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보고	-	-	-	-		
'18-3차	2018-03-23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임기만료 퇴임 ('18.03.2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직무 위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삼성중공업 증자 참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8-4차	2018-04-25	1. '18년 화재보험 계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18년 1분기 실적 및 상반기 전망 보고의 건	보고		-	-	-	-	
'18-5차	2018-07-25	1. 기부금 집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18년 2분기 실적 및 3분기 전망 보고의 건	보고		-	-	-	-	
'18-6차	2018-09-20	1. 천진 전장용 MLCC 新공장 신축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2. 투자자산 매각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18-7차	2018-10-30	1. 3분기 실적 및 연간전망 보고의 건	보고	-	-	-	-		
'18-8차	2018-12-13	1. '19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권태균 최현자 김용균	2018-02-22	1. '17년 4분기 기부금 집행실적 보고의 건	보고
			2. 제4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보고
			3. '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2018-04-25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 '18년 1분기 기부금 집행실적 보고의 건	보고
			3. '18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2018-07-25	1. '18년 2분기 기부금 집행실적 보고의 건	보고
			2. '18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3. '18년 핵심감사항목 보고의 건	보고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2018-10-30	1. '18년 3분기 기부금 집행 실적 보고의 건	보고
			2. '18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내부거래위원회	권태균 최현자 김용균	2018-02-22	1. '17년 내부거래 실적 보고의 건	보고
		2018-04-25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 '18년 화재보험 심의의 건	가결
			3. '18년 1분기 내부거래 실적 보고의 건	보고
		2018-07-25	1. '18년 2분기 내부거래 실적 보고의 건	보고
		2018-10-30	1. '18년 3분기 내부거래 실적 보고의 건	보고
2018-12-13	1. '19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한도 심의의 건	가결		
	2. 대규모 내부거래 심의의 건	가결		
보상위원회	이병준 권태균 김용균	2018-02-22	1.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4	11,000	369	92	퇴임이사 보수 포함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7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21610010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삼성전자(최대주주)	매출 및 원재료 등 매입	2018.1.1~2018.12.31	9,593	19.2%
Tianji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해외법인)	매출 및 상품 등 매입	2018.1.1~2018.12.31	10,846	21.7%
Donggua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해외법인)	매출 및 상품 등 매입	2018.1.1~2018.12.31	10,639	21.3%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Corp.(해외법인)	매출 및 상품 등 매입	2018.1.1~2018.12.31	7,848	15.7%
Samsung Electro-Mechanics Vietnam Co., Ltd.(해외법인)	매출 및 상품 등 매입	2018.1.1~2018.12.31	7,341	14.7%
Samsung High-Tech Electro-Mechanics(Tianjin) Co., Ltd.(해외법인)	매출 및 상품 등 매입	2018.1.1~2018.12.31	4,510	9.0%
Samsung Electro-Mechanics(Thailand) Co., Ltd.(해외법인)	매출 및 상품 등 매입	2018.1.1~2018.12.31	4,101	8.2%

※ 상기 비율은 2017년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액 대비 비율임

21610010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모듈솔루션 사업부문]

(산업의 특성)

모듈솔루션 사업은 카메라모듈, 통신모듈 등 모듈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 관점에서는 조립·모듈 사업으로 분류되고, 개발 관점에서는 광학기술, 회로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수동소자, 재료의 융복합을 통해 Set를 리드하는 솔루션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는 응용제품 사업으로 디지털제어와 S/W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카메라모듈의 응용 분야는 스마트폰 등 개인 모바일 기기용을 중심으로 자동차, 스마트가전, 보안,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카메라모듈의 고성능화와 함께 오토포커스, 광학식손떨림보정(OIS : Optical Image Stabilization), 듀얼카메라의 채용과 같은 부가기능의 추가로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신모듈은 Data 통신의 고도화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증가로 무선통신용 핵심부품인 WiFi모듈과 Cellular FEM 등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대두로 M2M(Machine To Machine) 통신모듈 시장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Identity간 통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5세대 초고속통신의 시장과 기술 기반이 조성되고 있어 또 한번의 변곡점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모바일, 자동차 등 Set제품의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완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 Set업체로부터 주문량이 증가하며,

불황일 때에는 완제품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으로 인해 수요 감소가 일어납니다.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당사는 광학렌즈설계, 회로설계, 패키징, S/W 기술을 기반으로 당사의 소재 역량과 결합시켜 고객 Needs에 적합한 카메라·무선통신 등 다양한 모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모듈은 렌즈설계 및 금형기술에서부터 오토포커스, 광학식 손떨림 보정 등 초정밀 고성능 액츄에이터 제조 내재화와 함께 S/W기술까지 보유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용 등으로의 사업확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신모듈은 회로설계, IC 등의 핵심부품을 내재화하고, 패키지 기술로 복합화/소형화/박형화를 추진하고, S/W기술을 활용한 모바일기기와 M2M에 필요한 시스템솔루션을 확보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수동소자, 자성재료, 기관 등의 내재화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의 기술 융·복합화를 추진중입니다.

[컴포넌트솔루션 사업부문]

(산업의 특성)

컴포넌트솔루션 사업은 수동소자 사업으로서 주요 제품은 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s), Inductor, Chip Resistor 등이 있습니다.

Smart IT·가전 전자제품에서부터 산업, 전장, 의료기기 등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전자부품입니다.

재료, 공정기술과 설비기술이 바탕이 되는 소재·장치산업으로서 유전체, 자성체 및 도전성 Paste 등 원천재료기술과 분산, 성형, 인쇄, 적층, 소성 등 핵심공정기술의 노하우가 필요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주요 Application인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TV 등의 고기능화 추세로 관련 부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자장비의 채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장치 및 연비 개선을 위한 각종 전자기기 채용증가로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Set의 고기능화에 따라 수동소자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Set 제품의 수요변동과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완제품 수요 증가와 재고 비축으로 인해 고객인 주요 Set 업체로부터 주문량이 급증하며, 불황일 때에는 완제품 수요 감소와 재고 감축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합니다.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초소형 고용량 재료기술 및 성형, 인쇄, 적층, 소성 등 핵심 공정기술의 강화와 개발 스피드, 제조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시장내 경쟁우위를 선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산성 향상과 제품간 시너지를 높여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워인덕터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Inductor 제품의 Line Up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솔루션 사업부문]

(산업의 특성)

기관솔루션 사업은 인쇄회로기판사업으로써 주요제품은 반도체패키지기판, 고밀도다층기판으로 반도체 및 전자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기계적으로 지지하는 회로 연결용 부품입니다.

IT·가전 전자제품에서부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모든 산업에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전방산업으로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산업이 있고, 후방산업으로는 잉크, 원판 등 소재산업과 도금, 인쇄, 노광 등의 설비산업이 있어 전후방 산업간 연관관계가 높고 그에 따라 파급 효과도 큼니다.

또한 장치산업으로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화학, 전기, 기계가공 등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High End 스마트폰의 고밀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진업체를 중심으로 차세대 기관기술이 접목된 기관으로의 설계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부가 제품의 확대가 전망됩니다.

또한,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은 글로벌 평균 성장률 대비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머징 마켓에서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보급형 스마트폰, TV, Note PC 등 전방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이와 함께 기관산업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인쇄회로기관은 전자기기, 반도체 등 사용되는 제품의 수요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완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 Set 업체로부터 부품 주문량이 늘어나며, 불황일 때에는 완제품의 수요 감소 및 재고 조정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듭니다.

기관은 Set 제품개발의 초기단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산업의 실물경기에 선행한 개발이 이루어져 사전 기술 및 양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당사는 축적된 재료제어기술, 공정기술, 제품기술과 안정된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으로 미세 회로 패턴, 차세대패키지 등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모듈솔루션 사업부문]

카메라모듈은 업계 최고성능으로 F1.5의 Dual 가변 조리개가 적용된 고성능 듀얼카메라 모듈을 양산하여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중화 및 신흥국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강화하여 매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통신모듈은 LTE 적용 스마트폰의 성장과 더불어 제품Line Up 강화했고 기술 규격의 발전에 선행해서 초고속, 대용량 무선통신의 5세대용 통신모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고기능 제품과 차별화 신제품의 Line Up을 강화하고, 고객별 맞춤형 마케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하며, 원가절감을 통한 끊임없는 사업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컴포넌트솔루션 사업부문]

당사는 0402(0.4mm×0.2mm) Size 등의 초소형 MLCC를 포함하여 고객의 Size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재료기술과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초고용량 제품을 지속 개발하여 공급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Needs에 맞춘 솔루션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주도권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신상품개발을 통한 Line Up 다양화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고객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견조한 수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고신뢰성 MLCC 개발 강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용 등 신규시장 진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1610010

[기관솔루션 사업부문]

최근 선진시장의 스마트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당사를 비롯한 주요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당사는 시장 리더십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반도체패키지기관, 고밀도다층기관의 박형 고밀도화와 선폭미세화를 추진하여 IT기기의 고기능화와 경박단소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소재/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박형화에도 기관이 휘지 않는 힘제어 기술, 미세선폭 구현 기술 등 차별화된 기술역량으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모듈솔루션, 컴포넌트솔루션, 기관솔루션 사업부문의 3개 사업부문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주요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모듈솔루션	· 카메라모듈, 통신모듈
컴포넌트솔루션	· 수동소자 (MLCC, Inductor, Chip Resistor 등)
기관솔루션	· 반도체패키지기판, 고밀도다층기판, PLP

(2)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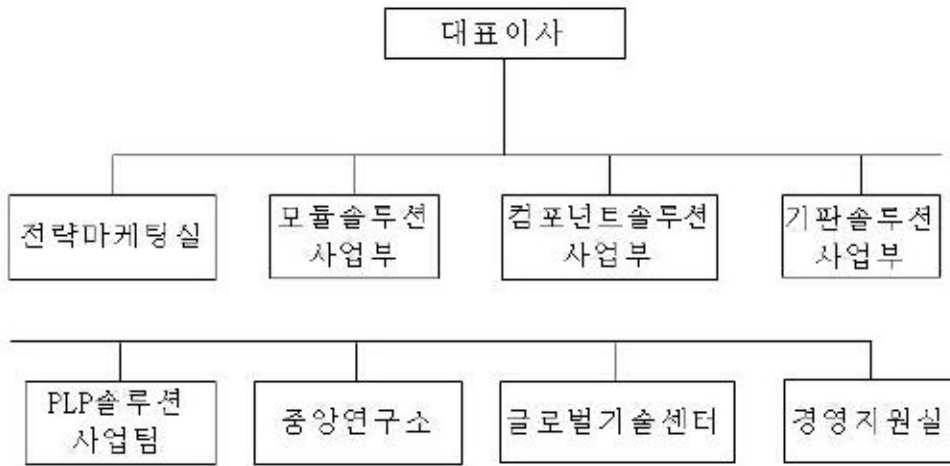
제 품	2016년	2017년	2018년
MLCC	20.6%	21.7%	22.7%
BGA	13.1%	13.0%	13.6%
ISM	10.7%	11.8%	12.8%

※ 시장점유율은 세계시장 점유율로서 당사의 추정치이며, 주요 경쟁사의 시장점유율은 시장조사기관들마다 점유율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점유율 기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의 특성

Ⅲ.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의 가. 업계의 현황 참조

(4)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4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주식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46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45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6기	제45기
자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02,374,471,773	444,609,329,777
기타금융자산	243,542,157,639	123,482,249,40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60,910,372,005	912,897,439,592
단기대여금	546,593,519	234,828,973
선금금	35,844,500,364	6,270,546,824
선금비용	36,396,555,152	35,754,069,726
당기법인세자산	19,206,307,573	36,656,270,634
재고자산	1,115,565,877,099	918,893,353,446
반환제품회수권	10,906,310,579	-
유동자산 합계	3,525,293,145,703	2,478,798,088,379
Ⅱ. 비유동자산		
관계기업투자	60,213,757,585	53,284,973,129
매도가능금융자산	-	725,530,836,47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150,889,138,429	-
장기대여금	2,197,986,394	2,227,119,045
유형자산	4,558,010,182,821	4,154,682,907,789
무형자산	162,460,608,115	149,487,113,350
기타금융자산	36,789,814,260	42,144,771,902
장기선금비용	38,799,612,190	38,908,099,61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375,843,577	39,388,966,877
이연법인세자산	80,884,116,755	82,950,666,490
비유동자산 합계	5,119,621,060,126	5,288,605,454,669
자산 총계	8,644,914,205,829	7,767,403,543,048
부채 및 자본		
부채		
Ⅰ. 유동부채		

과 목	제46기	제45기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91,417,868,679	728,590,026,558
단기차입금	961,955,861,424	1,203,792,484,010
선수금	7,247,601,229	13,678,164,173
기타금융부채	35,569,932,235	23,533,985,774
당기법인세부채	156,011,756,482	3,479,589,499
유동성장기차입금	432,049,753,433	467,529,000,000
선수수익	5,027,369,701	7,812,409,821
판매보증충당부채	3,408,156,425	5,694,037,266
환불부채	16,895,712,999	-
유동부채 합계	2,509,584,012,607	2,454,109,697,101
II.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060,133,398,202	897,616,232,181
장기기타채무	86,081,670,197	58,283,364,943
장기선수수익	15,306,671,215	11,153,131,310
순확정급여부채	26,141,991,061	13,511,148,911
이연법인세부채	1,168,906,288	1,238,582,272
비유동부채 합계	1,188,832,636,963	981,802,459,617
부채 총계	3,698,416,649,570	3,435,912,156,718
자본		
I. 납입자본과 적립금		
자본금	388,003,400,000	388,003,400,000
자본잉여금	1,045,201,199,091	1,045,201,199,091
기타자본	(146,701,455,500)	(146,701,455,5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5,200,814,069	335,297,333,286
적립금	1,952,365,257,472	2,225,865,257,472
이익잉여금	1,226,978,445,193	383,977,481,80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821,047,660,325	4,231,643,216,155
비지배지분	125,449,895,934	99,848,170,175
자본 총계	4,946,497,556,259	4,331,491,386,330
부채 및 자본의 총계	8,644,914,205,829	7,767,403,543,048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6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5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6기	제45기
I. 매출액	8,193,023,252,994	6,838,474,133,399
II. 매출원가	(5,805,531,038,267)	(5,430,059,519,148)
III. 매출총이익	2,387,492,214,727	1,408,414,614,251
IV. 판매비와관리비	(1,369,439,415,141)	(1,102,211,185,689)
V. 영업이익	1,018,052,799,586	306,203,428,562
VI. 영업외손익		
금융수익	12,776,639,298	11,007,953,030
금융원가	(90,121,880,044)	(66,063,752,236)
지분법손익	7,208,249,820	7,964,641,871
기타수익	295,361,022,808	223,995,277,042
기타비용	(302,883,861,819)	(229,559,442,465)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40,392,969,649	253,548,105,804
법인세비용	255,374,455,447	76,292,111,429
VIII. 당기순이익	685,018,514,202	177,255,994,375
IX.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467,843,285,75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처분손익	451,339,730,000	-
지분법자본변동	1,633,971,05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6,951,294,019)	(47,733,648,62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지분법자본변동	-	304,913,36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470,223,127)
해외사업환산손익	16,420,531,624	(75,113,343,986)

과 목	제46기	제45기
기타포괄손익 합계	(25,400,347,096)	(137,012,302,374)
X. 총포괄손익	659,618,167,106	40,243,692,001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656,241,635,879	161,739,107,180
비지배지분	28,776,878,323	15,516,887,195
합계	685,018,514,202	177,255,994,375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629,826,970,853	29,441,579,057
비지배지분	29,791,196,253	10,802,112,944
합계	659,618,167,106	40,243,692,001
XI.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8,685원	2,139원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8,735원	2,189원

S A M S U N G

21610010

-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 변동표

제46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5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 지분	총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적립금	이익잉여금		
2017년 기초(보고금액)	388,003,400,000	1,045,201,199,091	(146,701,455,500)	419,861,212,787	2,215,365,257,472	318,388,325,948	97,467,358,634	4,337,585,298,432
당기순이익	-	-	-	-	-	161,739,107,180	15,516,887,195	177,255,994,375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7,733,648,622)	-	(47,733,648,622)
지분법자본변동	-	-	-	304,913,361	-	-	-	304,913,36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4,470,223,127)	-	-	-	(14,470,223,12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70,398,569,735)	-	-	(4,714,774,251)	(75,113,343,986)
총포괄손익	-	-	-	(84,563,879,501)	-	114,005,458,558	10,802,112,944	40,243,682,001
연차배당	-	-	-	-	-	(37,916,302,700)	(8,319,418,195)	(46,235,720,895)
적립금의 적립	-	-	-	-	10,500,000,000	(10,500,000,000)	-	-
종속기업유상증자	-	-	-	-	-	-	29,606,792	29,606,792
종속기업유상감자	-	-	-	-	-	-	(131,490,000)	(131,490,000)
2017년 기말	388,003,400,000	1,045,201,199,091	(146,701,455,500)	335,297,333,286	2,225,865,257,472	383,977,481,806	99,848,170,175	4,331,491,386,330
2018년 기초(보고금액)	388,003,400,000	1,045,201,199,091	(146,701,455,500)	335,297,333,286	2,225,865,257,472	383,977,481,806	99,848,170,175	4,331,491,386,330
기준서 개정효과	-	-	-	19,366,851,790	-	(2,966,263,273)	(109,734,304)	16,270,854,213
수정 후 금액	388,003,400,000	1,045,201,199,091	(146,701,455,500)	354,664,185,076	2,225,865,257,472	380,991,218,533	99,738,435,871	4,347,762,240,543
당기순이익	-	-	-	-	-	656,241,635,879	28,776,878,323	685,018,514,202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6,951,294,019)	-	(26,951,294,019)
지분법자본변동	-	-	-	1,633,971,054	-	-	-	1,633,971,0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자산상품평가손익	-	-	-	(467,855,649,930)	-	-	12,364,175	(467,843,285,75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자산상품처분손익	-	-	-	451,339,730,000	-	-	-	451,339,730,000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5,418,577,869	-	-	1,001,953,755	16,420,531,624
총포괄손익	-	-	-	536,628,993	-	629,290,341,860	29,791,196,253	659,618,167,106
연차배당	-	-	-	-	-	(56,803,115,200)	(4,078,569,396)	(60,881,684,596)
적립금의 적립	-	-	-	-	(273,500,000,000)	273,500,000,000	-	-
연결실체의 변동	-	-	-	-	-	-	(1,166,792)	(1,166,792)
2018년 기말	388,003,400,000	1,045,201,199,091	(146,701,455,500)	355,200,814,069	1,952,365,257,472	1,226,978,445,193	125,448,895,934	4,946,497,556,259

-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46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5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6기	제45기
I.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1,640,496,362,856	775,766,668,252
이자의 수취	11,661,145,446	10,092,168,186
법인세의 납부	(93,488,267,315)	(68,175,232,386)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558,669,240,987	717,683,604,052
II. 투자활동현금흐름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97,469,134,564	292,195,506,58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12,063,539,976)	(94,620,093,6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의 처분	605,759,865,5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의 취득	(27,634,521,85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9,642,610,51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2,757,206,040)
유형자산의 처분	31,547,046,319	91,594,265,409
유형자산의 취득	(1,195,189,266,500)	(1,476,318,325,155)
무형자산의 처분	1,908,498,380	663,753,254
무형자산의 취득	(12,548,914,843)	(67,818,379,986)
배당금의 수령	12,661,738,200	5,140,963,400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698,089,960,161)	(1,232,276,905,640)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단기차입금의 차입	355,811,233,383	520,596,730,880
단기차입금의 상환	(534,360,947,257)	(104,630,832,655)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351,337,600,000)	(350,758,602,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484,187,346,776	275,079,559,220
장기차입금의 상환	(40,429,584,000)	(30,522,000,632)
연결실체의 변동	(1,166,792)	(101,883,208)

과 목	제46기	제45기
이자의 지급	(89,188,397,902)	(65,707,638,170)
배당금의 지급	(60,513,599,007)	(47,877,329,236)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235,832,714,799)	196,078,004,199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624,746,566,027	(318,515,297,389)
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66,981,424,031)	(32,686,059,475)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44,609,329,777	795,810,686,641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002,374,471,773	444,609,329,777

S A M S U N G

21610010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 석

제46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5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삼성전기주식회사(이하 "회사" 또는 "지배기업")는 1973년 8월 8일에 자본금 81백만 원으로 설립되어 12월 31일을 보고기간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1979년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으로서 각종 전자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은 경기도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녹산공단, 울산광역시 및 충청남도 천안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 미주, 유럽 및 아시아 각국에 15개의 자회사와 1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21610010

(1)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자본금(천원)	투자주식수	지분율	업 종	소재지	결산월
Samsung Electro-Mechanics (Thailand) Co., Ltd.	13,130,733	3,181,869주	75.00%	통신모듈 제조	태국	12월
Donggua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1)	73,534,869	-	100.00%	칩부품 제조	중국	12월
Tianji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1)	129,269,389	-	81.76%	칩부품 제조	중국	12월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Corp.	53,917,212	4,046,711주	100.00%	칩부품 제조	필리핀	12월
Samsung High-Tech Electro-Mechanics(Tianjin) Co., Ltd. (*1)	38,972,998	-	95.00%	카메라모듈 제조	중국	12월
Kunsha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1)	219,708,200	-	100.00%	고밀도다층기판 제조	중국	12월

회 사 명	자본금(천원)	투자주식수	지분율	업 종	소재지	결산월
Samsung Electro-Mechanics Vietnam Co., Ltd. (*1)	112,840,500	-	100.00%	카메라모듈 제조 고밀도다층기판 제조	베트남	12월
Samsung Electro-Mechanics America, Inc.	3,420,160	5,000주	100.00%	판매법인	미국	12월
Samsung Electro-Mechanics GmbH (*1)	3,089,662	-	100.00%	판매법인	독일	12월
Calamba Premier Realty Corporation (*2)	3,383	398주	39.80%	부동산 임대업	필리핀	12월
Samsung Electro-Mechanics Pte, Ltd.	1,215,800	1,760,200주	100.00%	판매법인	싱가폴	12월
Samsung Electro-Mechanics (Shenzhen) Co., Ltd. (*1)	2,368,283	-	100.00%	판매법인	중국	12월
Samsung Electro-Mechanics Japan Co., Ltd.	4,696,119	330,000주	100.00%	판매법인	일본	12월
Batino Realty Corporation	2,704	1,000주	39.80%	부동산 임대업	필리핀	12월
Samsung Electro-Mechanics Software India Bangalore Private Limited	16,790	100,000주	100.00%	소프트웨어 개발	인도	12월
삼성벤처투자조합(SVC 19호) (*1)	3,956,000	-	99.00%	투자조합	한국	12월

(*1) 법인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손자회사인 Batino Realty Corporation을 100%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입니다.

Samsung Electro-Mechanics do Brasil Intermediacoes de Negocios Ltda.는 당기 중 청산되었습니다.

한편, Calamba Premier Realty Corporation과 Batino Realty Corporation은 지분율이 50% 미만이지만 지분율의 50% 이상을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Corp.의 종업원퇴직연금이 소유하고 있어,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의 주요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 사 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Samsung Electro-Mechanics (Thailand) Co., Ltd.	206,957,912	49,800,539	367,025,044	8,701,331
Donggua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265,661,911	109,033,556	1,180,209,900	42,035,878
Tianji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946,210,181	498,128,304	1,501,322,088	138,063,642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Corp.	961,654,903	736,932,664	969,454,903	19,316,433
Samsung High-Tech Electro-Mechanics (Tianjin) Co., Ltd.	487,341,600	368,264,596	1,031,871,245	9,972,879
Kunsha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437,417,171	330,976,748	223,731,741	(74,722,952)
Samsung Electro-Mechanics Vietnam Co., Ltd.	1,300,169,034	952,949,988	1,844,392,528	127,120,644
Samsung Electro-Mechanics America, Inc.	66,194,912	53,547,438	290,056,237	1,566,036
Samsung Electro-Mechanics GmbH	104,102,610	79,591,282	210,211,312	3,142,194
Calamba Premier Realty Corporation	7,519,697	6,000,768	-	3,477
Samsung Electro-Mechanics Pte, Ltd.	85,924,643	62,784,796	282,953,294	4,460,845
Samsung Electro-Mechanics (Shenzhen) Co., Ltd.	476,741,055	365,667,766	1,960,759,298	80,483,904
Samsung Electro-Mechanics Japan Co., Ltd.	11,482,998	7,045,409	27,106,627	80,890
Batino Realty Corporation	4,423,971	3,790,700	-	109,549
Samsung Electro-Mechanics Software India Bangalore Private Limited	1,461,284	1,189,779	2,843,231	257,409
삼성벤처투자조합(SVC 19호)	15,388,003	52,173	-	(139,779)
합 계	5,378,651,885	3,625,756,506	9,891,937,448	360,452,380

(3) 비지배지분순이익

당기 연결기업의 비지배지분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관련회사명	비지배지분율	미실현손익 제거후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순손익
Samsung Electro-Mechanics (Thailand) Co., Ltd.	25.00%	9,449,860	2,362,465
Tianji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18.24%	140,304,478	25,591,537
Samsung High-Tech Electro-Mechanics (Tianjin) Co., Ltd.	5.00%	15,124,647	756,232
Calamba Premier Realty Corporation	60.20%	3,477	2,093
Batino Realty Corporation	60.20%	109,549	65,949
삼성벤처투자조합(SMC 19호)	1.00%	(139,779)	(1,398)
합 계		164,852,232	28,776,878

S A M S U N G

2161001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10010

2-3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 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 시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을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4 관계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해당분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이 자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을 자본에 반영하고 적용가능한 경우 연결자본변동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기업의 지분해당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손익은 이연법인세효과가 차감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분법손익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할 때, 연결기업은 관계기업투자에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매 보고일에 관계기업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날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이전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있다면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5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기업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

의 자산·부채로 보아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7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S A M S U N G

21610010

2-8 금융상품 :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채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2)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

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9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26
- 비상장지분증권 투자 - 주석 9
- 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26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S A M S U N G

21610010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10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11 유형자산

연결기업은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17 ~ 52년	공구 기구 비품	4년 ~ 5년
구 축 물	20 ~ 40년	차 량 운 반 구	4년 ~ 5년
기 계 장 치	4 ~ 5년		

2-12 리스

연결기업은 약정일에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i) 특정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ii)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스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 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로, 연결기업은 운용리스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4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비

연결기업은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특허권 및 회원권 등

특허권은 정부로부터 7~10년동안 사용을 허가 받았으며 종료시점에 갱신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및 소프트웨어는 각각 5년 및 4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하였으며 장기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각방법	추정내용연수
개발비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을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5년
특허권	권리 부여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7~10년
산업재산권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소프트웨어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4년
회원권	상각대상 아님	비한정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판매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하자보수 및 그에 따른 사후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하게 될 비용을 추산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및 배출부채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 허용량을 무료로 할당받고 있습니다. 동 배출권은 계획기간동안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연결기업은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하 '무상할당 배출권'이라 한다)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며 매입 배출권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는 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할당된 배출권을 실제 배출량이 초과할 때에만 인식하며, 배출원가는 영업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다음 (1)과 (2)를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 (1)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
- (2) (1)의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당기 중 연결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약 421,624KAU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배출권 무상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없습니다.

2-17 종업원급여

1) 연금 및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9 현금배당

연결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0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기업은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입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나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 시 반영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됩니다. 주식기준보상에 부여된 다른 조건(관련 용역조건이 없는 경우)은 비가득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원가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되며 용역제공조건 (또는 성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 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할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아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나 종업원의 통제하에 있는 비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1610010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기업은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일부 계약은 고객에 반품권을 제공하며, 반품권은 변동대에 해당합니다.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연결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2) 보증 의무

연결기업은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확신 유형의 보증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3) 반품권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반환제품회수권

반환제품회수권은 고객이 제품을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회수할 연결기업의 권리입니다. 자산은 재고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에서 제품의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와 반품된 제품의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 예상량의 변동과 반품될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갱신합니다.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연결기업이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기업은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 말에 갱신합니다.

2-22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세무적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 및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 및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S A M S U N G

21610010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중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21610010

2-24 제 · 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 ·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 · 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제한된 예외사항들과 함께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처리를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의 이전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할 때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공시사항을 요구합니다.

연결기업은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 기초 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적인 변경과 이에 따른 금액적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조정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자본				
이익잉여금	(a)	383,977,482	(1,515,199)	382,462,283

구 분	조정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비지배지분	(a)	99,848,170	(109,734)	99,738,436
총자본		483,825,652	(1,624,933)	482,200,719

<2018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조정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자산				
반환제품회수권	(a)	-	10,906,311	10,906,311
총자산		-	10,906,311	10,906,311
부채				
환불부채	(a)	3,261,410	13,634,303	16,895,713
총부채		3,261,410	13,634,303	16,895,713
자본				
이익잉여금	(a)	1,229,479,713	(2,501,268)	1,226,978,445
비지배지분	(a)	125,676,620	(226,724)	125,449,896
총자본		1,355,156,333	(2,727,992)	1,352,428,341

SAMSUNG

21610010

<2018년 12월 31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조정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매출액	(a)	8,193,202,584	(179,331)	8,193,023,253
매출원가	(a)	(5,804,607,310)	(923,728)	(5,805,531,038)
손익 순효과		2,388,595,274	(1,103,059)	2,387,492,215
지배기업소유주 손익		657,227,705	(986,069)	656,241,636
비지배지분 손익		28,893,868	(116,990)	28,776,878
기타포괄손익		(25,400,347)	-	(25,400,347)
총포괄손익 순효과		660,721,226	(1,103,059)	659,618,167

<2018년 12월 31일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조정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당기순이익	(a)	686,121,573	(1,103,059)	685,018,514
손익조정항목:				
환불자산평가손실	(a)	-	1,103,059	1,103,059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640,496,363	-	1,640,496,363

<2018년 주당이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원)

구 분	금 액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13)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13)

(a) 재화의 판매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며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이 인식될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수익의 인식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인식금액에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변동대가 - 반품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계약에서 고객이 제품을 반품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가 변동됩니다. 연결기업은 기댓값 방법이 연결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 금액을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품될 재화를 추정하기 위해 기댓값 방법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변동대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면서 연결기업은 반품권에 대한 충당금과 관련 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그 순효과는 2018년 기초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완료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한 최초 적용 누적 효과는 11,830,038천원의 반환제품회수권과 13,454,971천원의 환불부채의 인식, 그 결과 이익잉여금 1,515,199천원 및 비지배지분 109,734천원이 기초 자본에서 조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는 종전의 회계처리기준과 비교해서 10,906,311천원의 반환제품회수권과 13,634,303천원의 환불부채의 인식, 2,501,268천원의 이익잉여금 및 226,724천원의 비지배지분 감소 효과가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의 포괄손익계산서 또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79,331천원, 매출원가 923,728천원이 종전의 회계처리기준과 비교해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연차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세 가지 측면인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연결기업은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조정사항	금 액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	19,366,852
이익잉여금	(b)	(1,471,064)
총자본		17,895,788

(a) 분류 및 측정

제거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이 범주는 연결기업이 예상되는 미래기간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최초 인식 또는 거래 시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한 지분상품만 포함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손상 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 연결기업의 해당 지분상품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은 지분상품으로 구성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 연결기업은 해당 지분증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610010

(b)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은 금융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접근법을 미래의 기대신용손실(ECL) 접근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연결기업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연결기업이 대여금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기타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기초로 합니다. 현금부족액은 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합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경우, 연결기업은 간편법을 적용하고 신용손실이 예상되는 기대존속기간에 근거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합니다. 연결기업은 차입자 특유의미래 예상 요인과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한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근거로 충당금설 정률표를 설계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적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은 연결기업의 채 무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증가시켰습니다. 충당금의 증가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조정되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 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 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 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 습니다.

21610010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 투자부동산 계정 대체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과 관련한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 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의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 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 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

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개별기준 선택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기준서 제1101호 문단E3~E7는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으로,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5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 재무위험 관리의 목적 및 정책, 민감도 분석(주석26)이 있습니다.

(1)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 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및 사망율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개발비

연결기업은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자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따라 선정된 일정 수준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산화 대상 개발비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미래기대현금흐름, 할인율 및 경제적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경영자의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66,700백만원입니다.

- 반품에 대한 변동대가 추정

연결기업은 반품권이 있는 재화 판매의 거래가격에 변동대가를 추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 예상에 대해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각 제품의 과거 반품 데이터에서 예상 반품률을 산출하며, 동 비율은 변동대가의 예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됩니다. 과거 반품 패턴과 같은 유의적인 경험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예상 반품률 추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결기업은 예상 반품을 매분기 수정하며, 환불부채도 조정됩니다. 예상되는 반품은 연결기업의 과거 반품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며, 미래에 고객의 실제 반품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예상되는 반품에 대한 환불부채는 16,896백만원입니다.

2-26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할 것입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연결기업이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17,904백만원입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

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 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연결기업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채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이 개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의 효력이 발생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 제도의 정산,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전, 후의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 잔여 연차 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

개정사항은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하여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이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에 대해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손실모형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의 어떻게 적용할지

를 다룹니다. 그러나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과 구체적으로 세금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불확실한 세무 처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연결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며 특정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시행일에 이 해석서를 적용할 것입니다. 연결기업은 여러 국가의 복잡한 세무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해석서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해석서를 적시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의 구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2015 - 2017 연차개선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향후 사업결합거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

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거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46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45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기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46기	제45기
자산		
I.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725,611,646,546	122,980,557,471
기타금융자산	239,496,477,625	119,676,005,91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00,690,035,634	819,010,475,421
선급금	1,118,603,322	130,346,399
선급비용	24,815,891,101	22,129,081,819
당기법인세자산	-	1,050,338,090
재고자산	297,231,987,368	283,951,466,157
반환제품회수권	9,643,963,566	-
유동자산 합계	2,098,608,605,162	1,368,928,271,269
II. 비유동자산		
관계기업투자	30,048,853,389	30,048,853,389
종속기업투자	678,524,859,737	659,290,409,737
매도가능금융자산	-	717,557,426,7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141,989,176,715	-
유형자산	2,112,584,853,034	1,829,322,619,998
무형자산	152,260,829,147	137,332,446,652
기타금융자산	32,330,059,539	38,580,651,728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479,312,057	30,898,091,952
장기선급비용	26,183,650,353	25,931,722,239

과 목	제46기	제45기
이연법인세자산	160,872,381,984	105,713,031,171
비유동자산 합계	3,350,273,975,955	3,574,675,253,585
자산 총계	5,448,882,581,117	4,943,603,524,854
부채 및 자본		
부채		
Ⅰ.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56,518,543,262	666,279,624,341
단기차입금	250,570,504,585	153,025,561,750
선수금	18,627,871	645,686,946
기타금융부채	18,017,041,143	15,451,761,655
당기법인세부채	125,680,058,469	-
판매보증충당부채	990,550,117	952,730,047
환불부채	17,112,826,755	-
유동부채 합계	1,068,908,152,202	836,355,364,739
Ⅱ.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300,000,000,000	300,000,000,000
장기기타채무	84,085,563,433	56,164,880,195
순확정급여부채	18,319,705,718	4,840,310,488
비유동부채 합계	402,405,269,151	361,005,190,683
부채 총계	1,471,313,421,353	1,197,360,555,422
자본		
Ⅰ.납입자본과 적립금		
자본금	388,003,400,000	388,003,400,000
자본잉여금	1,014,665,717,368	1,014,665,717,368
기타자본	(146,701,455,500)	(146,701,455,5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81,503,255,431	479,876,376,897
적립금	1,952,365,257,472	2,225,865,257,472
이익잉여금	287,732,984,993	(215,466,326,805)
자본 총계	3,977,569,159,764	3,746,242,969,432
부채 및 자본의 총계	5,448,882,581,117	4,943,603,524,854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46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5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기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46기	제45기
I. 매출액	5,682,105,030,008	5,003,041,031,793
II. 매출원가	(4,158,877,893,944)	(4,167,610,882,987)
III. 매출총이익	1,523,227,136,064	835,430,148,806
IV. 판매비와관리비	(1,125,324,092,453)	(886,088,801,635)
V. 영업손익	397,903,043,611	(50,658,652,829)
VI. 영업외손익		
금융수익	8,219,790,758	8,630,819,366
금융원가	(16,664,158,142)	(7,043,366,160)
기타수익	151,716,930,843	152,343,817,880
기타비용	(124,414,150,235)	(276,869,945,743)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16,761,456,835	(173,597,327,486)
법인세비용(수익)	99,118,139,989	(4,867,637,186)
VIII. 당기순손익	317,643,316,846	(168,729,690,300)
IX.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금융부채의 재측정요소	(29,049,313,306)	(47,961,678,33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실	(469,079,703,25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처분이익	451,339,730,00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1,465,263,127)
기타포괄손익 합계	(46,789,286,562)	(59,426,941,466)
X. 총포괄손익	270,854,030,284	(228,156,631,766)

과 목	제46기	제45기
XI. 주당손익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4,203원	(2,235)원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4,253원	(2,185)원

S A M S U N G

21610010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46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5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기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적립금	이익잉여금	총 계
2017년 기초(보고금액)	388,003,400,000	1,014,665,717,368	(146,701,455,500)	491,341,640,024	2,215,365,257,472	49,641,344,534	4,012,315,903,898
당기손실	-	-	-	-	-	(168,729,690,300)	(168,729,690,300)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7,961,678,339)	(47,961,678,33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1,465,263,127)	-	-	(11,465,263,127)
총포괄손익	-	-	-	(11,465,263,127)	-	(216,691,368,639)	(228,156,631,766)
연차배당	-	-	-	-	-	(37,916,302,700)	(37,916,302,700)
적립금의 적립	-	-	-	-	10,500,000,000	(10,500,000,000)	-
2017년 기말	388,003,400,000	1,014,665,717,368	(146,701,455,500)	479,876,376,897	2,225,865,257,472	(215,466,326,805)	3,746,242,969,432
2018년 기초(보고금액)	388,003,400,000	1,014,665,717,368	(146,701,455,500)	479,876,376,897	2,225,865,257,472	(215,466,326,805)	3,746,242,969,432
기준서 개정효과	-	-	-	19,366,851,790	-	(2,091,576,542)	17,275,275,248
수정 후 금액	388,003,400,000	1,014,665,717,368	(146,701,455,500)	499,243,228,687	2,225,865,257,472	(217,557,903,347)	3,763,518,244,680
당기순이익	-	-	-	-	-	317,643,316,846	317,643,316,846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9,049,313,306)	(29,049,313,3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	-	(469,079,703,256)	-	-	(469,079,703,2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처분손익	-	-	-	451,339,730,000	-	-	451,339,730,000
총포괄손익	-	-	-	(17,739,973,256)	-	288,594,003,540	270,854,030,284
연차배당	-	-	-	-	-	(56,803,115,200)	(56,803,115,200)
적립금의 적립	-	-	-	-	(273,500,000,000)	273,500,000,000	-
2018년 기말	388,003,400,000	1,014,665,717,368	(146,701,455,500)	481,503,255,431	1,952,365,257,472	287,732,984,993	3,977,569,159,764

2161001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6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5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기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6기 (처분예정일 : 2019년 3월 20일)		제45기 (처분확정일 : 2018년 3월 23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287,732,984,993		(215,466,326,80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30,557,995		1,225,041,834	
2. 회계정책 변경효과	(2,091,576,542)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9,049,313,306)		(47,961,678,339)	
4. 당기순이익	317,643,316,846		(168,729,690,300)	
II.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279,200,000,000
1. 임의적립금 이입액	-		279,200,000,00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282,289,927,700		62,503,115,200
1. 이익준비금	7,600,000,000		5,700,000,000	
2. 임의적립금	199,000,000,000		-	
3. 배당금	75,689,927,700		56,803,115,200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 1,000원(20%)	72,693,696,000		54,520,272,000	
전기 : 750원(15%)				
우선주 - 당기 : 1,050원(21%)	2,996,231,700		2,282,843,200	
전기 : 800원(16%)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443,057,293		1,230,557,995

SAMSUNG

21610010

- 별도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46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5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기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6기	제45기
I.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778,471,181,208	254,174,474,718
이자의 수취	6,570,132,219	7,688,465,959
법인세의 납부	(18,893,124,831)	(16,058,580,402)
영업활동순현금흐름	766,148,188,596	245,804,360,275
II. 투자활동현금흐름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97,140,031,738	275,710,133,05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10,702,465,000)	(75,223,119,000)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316,800,000	19,099,362,7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48,582,250,000)	(96,395,706,7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의 처분	605,45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의 취득	(27,634,521,85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3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19,962,182,128	46,510,831,583
유형자산의 취득	(679,034,645,945)	(608,057,423,388)
무형자산의 처분	531,842,715	727,125,077
무형자산의 취득	(12,341,828,966)	(72,965,793,219)
배당금의 수취	67,305,997,738	47,172,894,251
투자활동순현금흐름	(187,588,857,442)	(463,391,695,672)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단기차입금의 차입(상환)	97,544,942,835	(29,368,572,798)
이자의 지급	(16,664,240,334)	(8,578,842,019)
배당금의 지급	(56,808,944,580)	(37,915,052,72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24,071,757,921	(75,862,467,537)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602,631,089,075	(293,449,802,934)
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41,078,850)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22,980,557,471	416,871,439,255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725,611,646,546	122,980,557,471

SAMSUNG

21610010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 석

제46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5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기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삼성전기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3년 8월 8일에 자본금 81백만원으로 설립되어 12월 31일을 보고기간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1979년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으로서 각종 전자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당사는 경기도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녹산공단, 울산광역시 및 충청남도 천안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 미주, 유럽 및 아시아 각국에 15개의 자회사와 1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기 전부터 소유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1610010

2-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이러한 현금 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6 금융상품 :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2)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7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26
- 비상장지분증권 투자 - 주석 9

- 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26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
-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S A M S U N G

21610010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당사는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17 ~ 52년	공구 기구 비품	4년
구 축 물	20 ~ 40년	차 량 운 반 구	4년
기 계 장 치	4 ~ 5년		

2-10 리스

당사는 약정일에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i) 특정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ii)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스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로, 당사는 운용리스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2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비

당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특허권 등

특허권은 정부로부터 7~10년동안 사용을 허가 받았으며 종료시점에 갱신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및 소프트웨어는 각각 5년 및 4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당사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하였으며 장기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각방법	추정내용연수
개발비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5년
특허권	권리 부여기간동안	7~10년
산업재산권	정액법으로 상각	5년
소프트웨어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	4년

구 분	상각방법	추정내용연수
	법으로 상각	
회 원 권	상각대상 아님	비한정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4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매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하자보수 및 그에 따른 사후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하게 될 비용을 추산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및 배출부채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 허용량을 무료로 할당받고 있습니다. 동 배출권은 계획기간동안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당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하 '무상할당 배출권'이라 한다)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며 매입 배출권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는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할당된 배출권을 실제 배출량이 초과할 때에만 인식하며, 배출원가는 영업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다음 (1)과 (2)를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 (1)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
- (2) (1)의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당기 중 당사의 탄소배출량은 약 421,624KAU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배출권 무상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없습니다.

21610010

2-15 종업원급여

1) 연금 및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 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현금배당

21610010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18 주식기준보상거래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입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나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 시 반영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됩니다. 주식기준보상에 부여된 다른 조건(관련 용역조건이 없는 경우)은 비가득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원가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되며 용역제공조건 (또는 성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 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할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아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옵션의 회석효과는 회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회석주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일부 계약은 고객에 반품권을 제공하며, 반품권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는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계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당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 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2) 보증 의무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신 유형의 보증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3) 반품권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반환제품회수권

반환제품회수권은 고객이 제품을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회수할 당사의 권리입니다. 자산은 재고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에서 제품의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와 반품된 제품의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반품 예상량의 변동과 반품될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갱신합니다.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당사가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S A M S U N G

21610010

2-20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세무적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 및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 및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중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2-22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제한된 예외사항들과 함께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처리를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의 이전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할 때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공시사항을 요구합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 기초 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적인 변경과 이에 따른 금액적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조정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자본				
이익잉여금	(a)	(215,466,327)	(620,512)	(216,086,839)
총자본		(215,466,327)	(620,512)	(216,086,839)

<2018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조정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자산				
반환제품 회수권	(a)	-	9,643,964	9,643,964
총자산		-	9,643,964	9,643,964
부채				
환불부채	(a)	6,687,016	10,425,811	17,112,827
총부채		6,687,016	10,425,811	17,112,827
자본				
이익잉여금	(a)	282,598,704	(781,847)	281,816,857
총자본		282,598,704	(781,847)	281,816,857

<2018년 12월 31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조정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매출액	(a)	5,689,247,311	(7,142,281)	5,682,105,030
매출원가	(a)	(4,165,858,840)	6,980,946	(4,158,877,894)
손익 순효과		1,523,388,471	(161,335)	1,523,227,136
기타포괄손익		(46,789,287)	-	(46,789,287)
총포괄손익 순효과		265,099,237	(161,335)	264,937,902

<2018년 12월 31일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조정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당기순이익	(a)	311,888,524	(161,335)	311,727,189
손익조정항목:				
환불자산평가손실	(a)	-	161,335	161,335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766,148,189	-	766,148,189

<2018년 주당이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원)

구 분	금 액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2)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2)

(a) 재화의 판매

당사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며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이 인식될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수익의 인식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인식금액에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변동대가 - 반품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계약에서 고객이 제품을 반품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가 변동됩니다. 당사는 기댓값 방법이 당사가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 금액을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품될 재화를 추정하기 위해 기댓값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변동대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면서 당사는 반품권에 대한 충당금과 관련 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그 순효과는 2018년 기초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완료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한 최초 적용 누적 효과는 2,663,018천원의 반환제품 회수권과 3,283,530천원의 환불부채의 인식, 그 결과 620,512천

원의 이익잉여금이 기초 자본에서 조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는 종전의 회계처리기준과 비교해서 9,643,964천원의 반환제품회수권과 10,425,811천원의 환불부채의 인식, 781,847천원의 이익잉여금 감소 효과가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의 포괄손익계산서 또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7,142,281천원, 매출원가 6,980,946천원이 종전의 회계처리기준과 비교해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연차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세 가지 측면인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조정사항	금 액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	19,366,852
이익잉여금	(b)	(1,471,065)
총자본		17,895,787

(a) 분류 및 측정

제거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이 범주는 당사가 예상되는 미래기간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최초 인식 또는 거래 시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한 지분상품만 포함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손상 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 당사의 해당 지분상품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은 지분상품으로 구성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 당사는 해당 지분증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b)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은 금융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접근법을 미래의 기대신용손실(ECL) 접근법으로 대체함으로써 당사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당사가 대여금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기타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기초로 합니다. 현금부족액은 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합니다.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의 경우, 당사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신용손실이 예상되는 기대존속기간에 근거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합니다. 당사는 차입자 특유의 미래 예상 요인과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근거로 충당금설정률표를 설계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적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은 당사의 채무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증가시켰습니다. 충당금의 증가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조정되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

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 투자부동산 계정 대체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과 관련한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의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개별기준 선택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i)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ii)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iii)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최초채택 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기준서 제1101호 문단E3~E7는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으로,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 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민감도 분석(주석25)이 있습니다.

(1)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 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

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경영자는 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율 및 사망율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개발비

당사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자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따라 선정된 일정 수준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산화 대상 개발비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미래기대현금흐름, 할인율 및 경제적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경영자의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62,168백만원입니다.

- 반품에 대한 변동대가 추정

당사는 반품권이 있는 재화 판매의 거래가격에 변동대가를 추정합니다. 당사는 반품 예상에 대해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각 제품의 과거 반품 데이터에서 예상 반품률을 산출하며, 동 비율은 변동대가의 예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됩니다. 과거 반품 패턴과 같은 유의적인 경험의 변동은 당사의 예상 반품률 추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사는 예상 반품을 매분기 수정하며, 환불부채도 조정됩니다. 예상되는 반품은 당사의 과거 반품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며, 미래에 고객의 실제 반품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예상되는 반품에 대한 환불부채는 17,113백만원입니다.

S A M S U N G

21610010

2-2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효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할 것입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당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2,550백만원입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

계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채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이 개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의 효력이 발생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 제도의 정산,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 후의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

여부채(자산)를 재측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 잔여 연차 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

개정사항은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하여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이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에 대해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의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과 구체적으로 세금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불확실한 세무 처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서는 다

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당사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며 특정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시행일에 이 해석서를 적용할 것입니다. 당사는 여러 국가의 복잡한 세무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해석서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해석서를 적시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의 구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2015 - 2017 연차개선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향후 사업결합거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

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거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당사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1월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당 기 (47기)	전 기 (46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4)	7(4)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10억	110억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SAMSUNG

21610010